

Issue Brief

JEJU WOMA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32]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2018. 12. 21 | 발행인: 이은희

제주지역 최근 출산 동향과 일상 속 성평등 실천 과제

고지영¹⁾

목 차

1. 제주지역 최근 출산 동향
2. 남녀의 동상이몽 : 결혼, 자녀, 가족생활 인식 및
경험 차이
3. 일상 속 성평등 실천 과제

1)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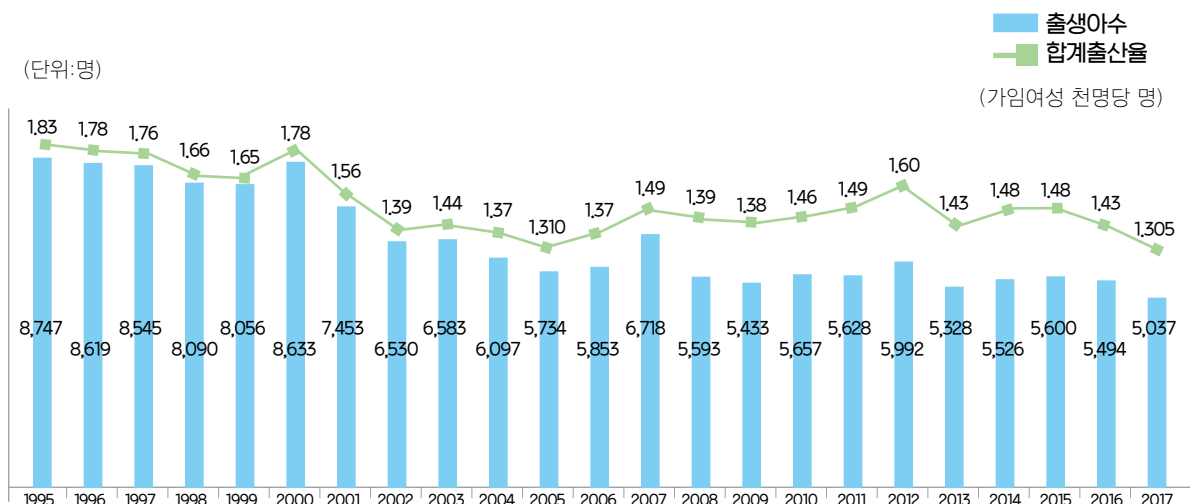
- 2017년, 전국과 제주지역 모두 역대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함.
- 저출산 대응에 있어 정책과 일상생활 속 성평등 실천의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일상생활 속 결혼, 자녀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제주 도민의 인식과 경험을 분석한 결과, 남녀의 경험이 다를 뿐 만 아니라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간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각 분야 정책의 성 주류화와 실질적 성평등을 지향하는 정책 수립과 성과, 일상생활 영역에 존재하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성 불평등한 관습의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남녀가 함께 영위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함.

1. 제주지역 최근 출산 동향

■ 2017년 전국, 제주지역 모두 역대 최저의 출산율

- 2017년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출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 제주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꾸준히 높지만 2017년 1.305명으로, 전국 추세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저의 수준을 기록함.
- 제주지역의 2017년 출생아수는 5,037명으로 역대 최저의 수치로 나타남.

[그림 1] 제주지역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199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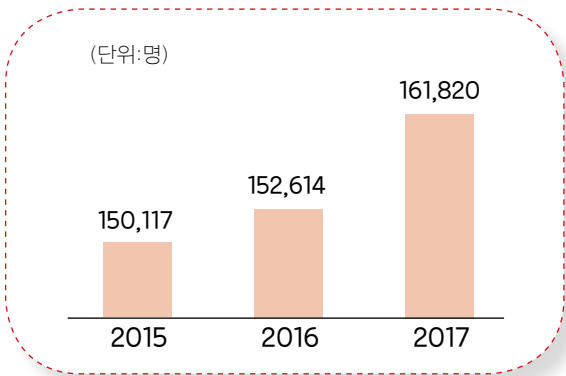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제주지역 15~49세 가임기 여성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심화

- 최근 3년 간 제주지역의 15~49세 가임기 여성 인구는 증가 추세임.
- 가임기 여성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제주도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냄.

[그림 2] 제주 15~49세 여성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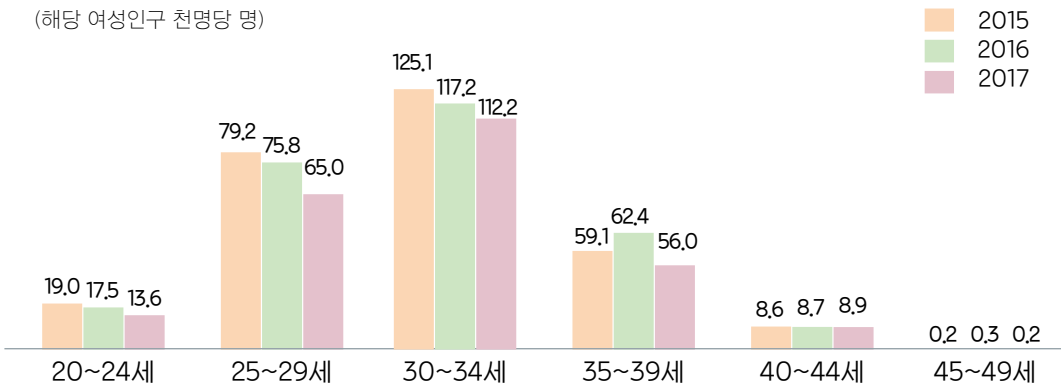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 20~39세 연령대의 출산율 지속적으로 감소

- 최근 3년간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39세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이 현저하게 감소추세임
- 20대 후반 : 2015년 79.2명 → 2017년 65.0명
- 30대 초반 : 2015년 125.1명 → 2017년 112.2명
- 한편 40~44세 연령대의 출산율은 약간 증가, 45~49세 연령대의 출산율은 변화가 없음.

[그림 3] 제주지역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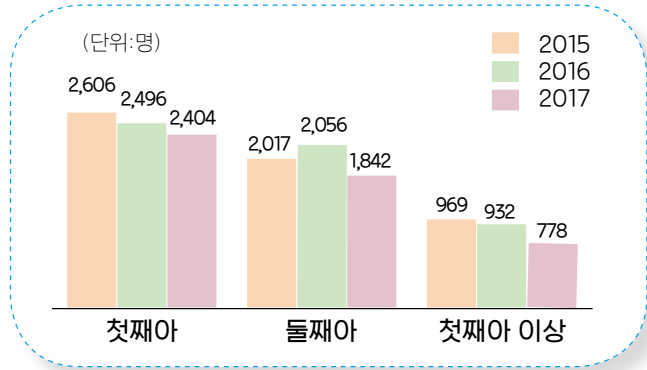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최근 3년, 모든 출산순위에서 출생아 수 감소 추세

- 2015년 대비 2017년 출생아수는
첫째 아 202명(7.8%), 둘째 아 175명
(8.7%), 셋째 아 이상 191명(19.7%)
감소함.
- 첫째아 출생아수까지 감소추세임을
볼 때, 자녀의 수를 불문하고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 제주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남녀의 동상이몽 : 결혼, 자녀, 가족생활 인식 및 경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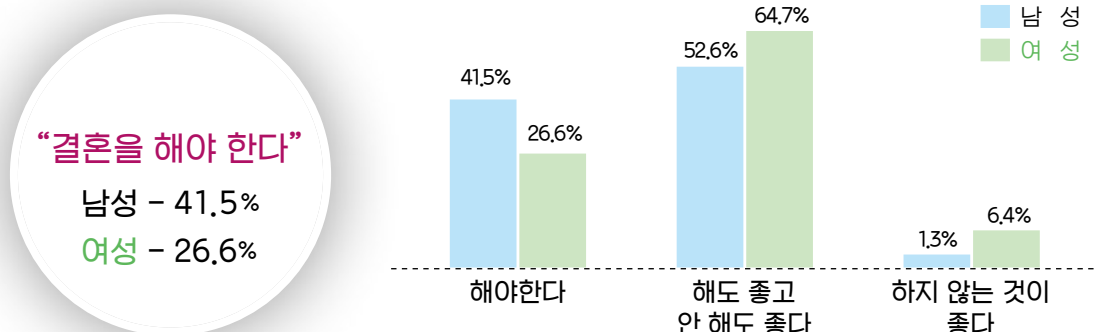
■ 저출산 문제의 미시적 접근 : 혼인, 자녀, 가족에 대한 성별 인식과 경험의 차이

-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응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접근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음.
- 미시적 차원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이행할 당사자들인 남녀의 혼인, 자녀, 가족관 및 가족생활의 인식과 경험을 성평등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 역시 저출산 문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접근임.

■ 결혼에 대한 제주 미혼남녀의 인식 차이

● 제주지역 20~49세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견해 :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부정적

[그림 5] 제주 20~49세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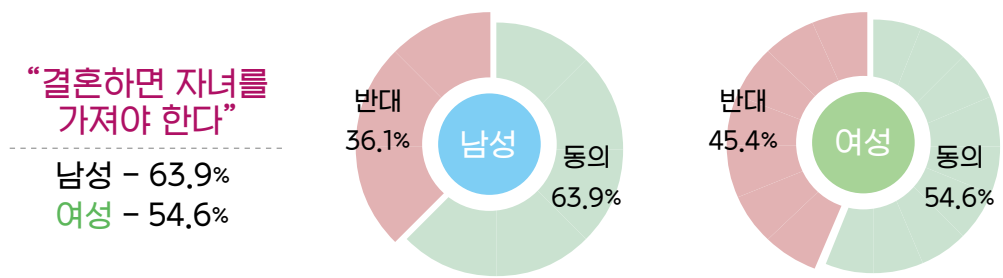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8) 원자료 분석.

■ 자녀 출산에 대한 제주 미혼남녀의 인식 차이

● 제주지역 20~49세 미혼남녀의 자녀출산에 대한 견해 :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부정적

[그림 6] 제주 20~49세 미혼 남녀의 자녀 출산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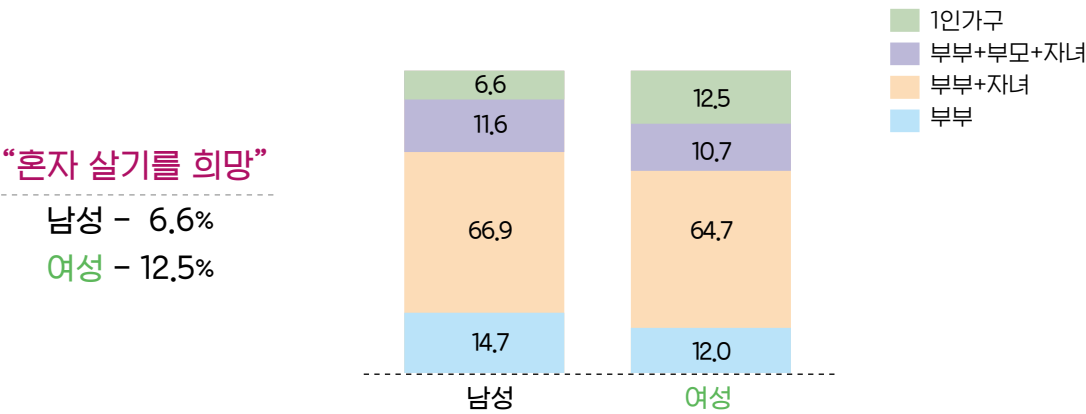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8) 원자료 분석.

■ 미혼남녀가 희망하는 가족형태

● 제주지역 20~49세 미혼남녀가 희망하는 가족형태 : 여성이 남성보다 혼자 살기를 더 희망

- 남녀 모두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가장 선호함.
- 1인 가구로 혼자 살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의 두 배 가까이 많음
- 자녀 없이 부부만 또는 혼자 사는 것을 희망하는 정도 : 남성(21.3%) < 여성(24.5%)

[그림 7] 제주 20~49세 미혼 남녀가 희망하는 미래 가족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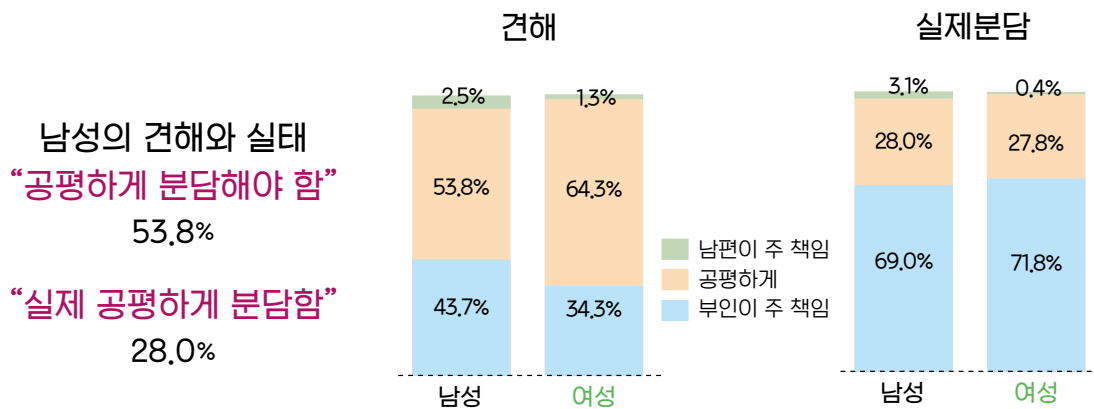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2017) 원자료 분석.

■ 20~49세 기혼 남녀의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와 실제 분담 실태

● 남녀 모두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나 실제 분담은 주로 여성

-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 남성(53.8%) < 여성(64.3%)
- 실제로 공평하게 분담함 : 남성(28.0%) > 여성(27.8%)

[그림 8] 제주 20~49세 기혼 남녀의 가사분담 견해와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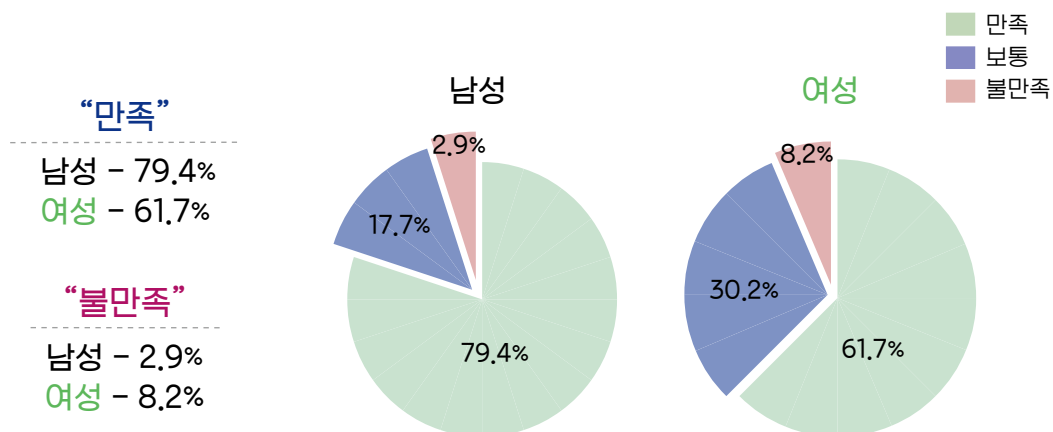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8) 원자료 분석.

■ 20~49세 기혼 남녀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 비율 낮고, “불만족” 비율 높음

[그림 9] 제주 20~49세 기혼 남녀의 배우자관계 만족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8) 원자료 분석.

3. 일상 속 성평등 실천 과제

■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왜 성평등을 말하는가?

- 2017년 한국은 역대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고, 이는 제주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임.
-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소에 대해 사회적 담론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성평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성평등과 저출산의 관계

● U자형 페미니스트 패러독스 : 북유럽 국가의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사례

- 국가수준에서 분석할 때, 성평등 수준과 저출산이 U자형 관계를 이룬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 즉, 개발 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며, 어떤 학자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 (feminist paradox)라고 부르기도 함²⁾.
- OECD 국가 중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음.
- 한편,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의 동유럽 국가는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낮은 국가로 나타남.

■ 저출산 대응, 정책과 일상 속 실천을 통한 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필수

“스웨덴은 인구정책이 아니라 성평등과 관련된 변화에서 출산율이 반전됐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가부장적 문화 때문”

- 스웨덴의 의사이자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 교수는 2015년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평등이 저출산 극복의 단초임을 스웨덴의 경험을 통해 설명하면서(정형욱, 2015), 한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부장적 문화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음³⁾.

2) 정형욱, 2015, “OECD 주요국가 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이슈분석』 제23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3)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용은 파이낸셜 뉴스, 2015.10.4, “한스 로슬링 교수 “한국 저출산은 가부장적 문화 때문, 양성평등이 해결책 될 것”<http://www.fnnews.com/news/201510041729305310>).

-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결혼, 자녀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남녀의 인식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성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과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이 더욱 절실한 현실임.
- 저출산 대응 정책은 인구, 노동, 일자리, 문화, 보육, 아동·청소년, 교육, 주택, 복지, 환경 등 사회 전 분야에 연동되므로 각 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의 정책 수립과 실질적 성평등을 지향하는 실천 전략이 강화되어야 함.
-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결혼, 자녀 양육과 돌봄, 가족생활, 일과 여가 등 일상생활영역에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성 불평등한 관습의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남녀가 함께 영위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노력이 공유되어야 함.
- 한편, 각계 각종 제주도민의 성평등 인식과 실태에 대한 꾸준한 데이터 생산과 분석을 통해서 주제 및 대상별로 보다 구체적인 성평등 실천 과제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